

Strategist 이영원

02) 3787-2505

youngwon.lee@hmcib.com

Jr. Analyst 김정호

02) 3787-2385

hmcstar@hmcib.com

유럽 모멘텀, 아직은 미약한...

-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의 시장 여건이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정책(Tapering)에 따른 시장의 입지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경기 모멘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재정위기에 시달리던 유럽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GDP증가율이 예상외로 (+)반전하는 등 경기 회복국면의 초입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
- 유럽의 회복은 국내 경기, 시장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럽 익스포저가 큰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뿐 아니라 무역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개선도 주목해야 할 상황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의 금융환경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이슈(Tapering)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상황이 훨씬 긍정적인데다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입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유럽의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지며 재정위기 이후 침체가 이어졌던 유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제성장률도 이런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 EU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 전환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경우는 (-)성장률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영국 등과 함께 프랑스도 예상외의 강한 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는 유럽 익스포저가 큰 중국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지며 유럽 - 중국 - 여타 신흥시장국가로 이어지는 기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이슈가 전면부에 부각된 미국의 경기 상황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경기 모멘텀의 부각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는 아직 초기 국면의 움직임에 국한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의 초기국면에 국한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DP의 경우에도 전기비 성장률은 개선되었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여전히 (-)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규모 역시 2007년 금융위기 이전은 물론 2011년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PMI등 서베이 지표를 제외하고는 실물의 본격적인 회복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매판매 동향이나 산업생산 등에 있어 미국의 경우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유럽의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추세반전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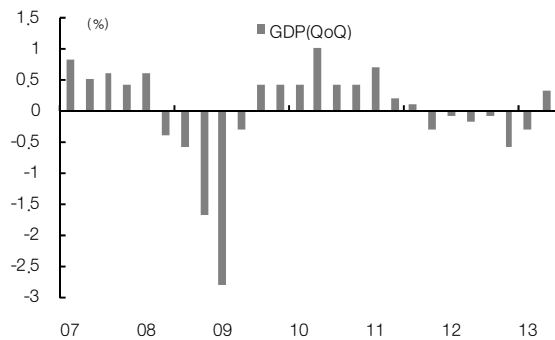
다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 반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며 위축되었던 상태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일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9월 22일 독일 총선 이후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경기부양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Tapering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유로화의 가치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

는 점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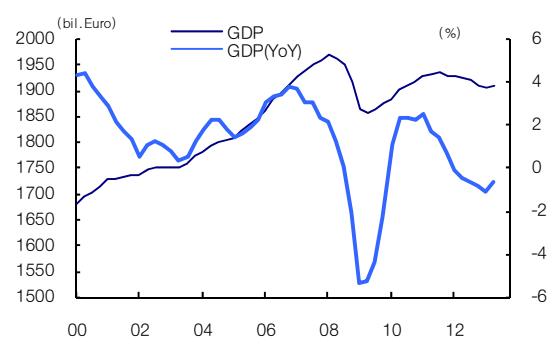
국내 경제도 유럽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유럽(EU)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수출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자동차를 포함한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등의 품목은 전체 대유럽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강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바닥권을 지나며 모멘텀이 개선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유럽 GDP증가율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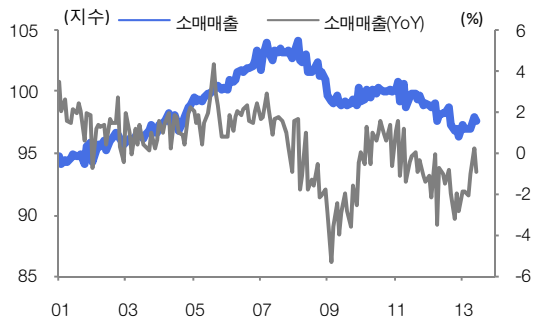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2〉 유럽 GDP증가율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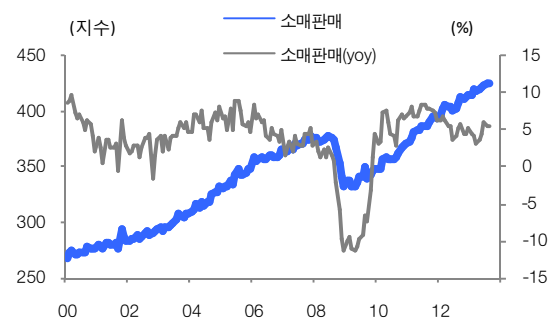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3〉 유로존 소매매출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4〉 미국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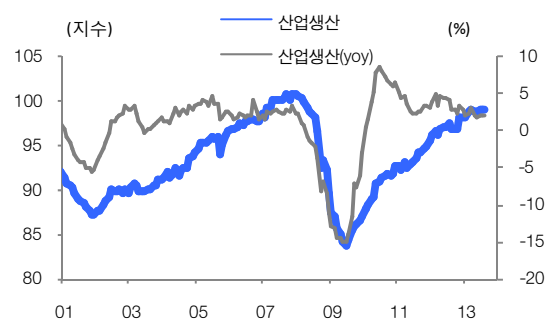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5〉 유로존 산업생산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6〉 미국 산업생산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표1〉 대 유럽(EU) 수출 상위 품목

		2012년		2013년 (6월까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49,370,825	-11.4	24,732,789	-3.7
1	선박	7,917,656	-36.8	3,856,795	-24.3
2	승용차	5,128,483	-9.5	3,049,868	16.5
3	자동차부품	3,701,184	-0.3	1,727,446	-13
4	평판디스플레이	3,923,917	3.3	1,600,713	-10.4
5	무선전화기	2,553,949	42.4	1,078,020	5.5
6	합성수지	1,433,637	18.1	919,303	34.9
7	제트유및등유	2,192,611	119.8	840,963	-16.6
8	집적회로반도체	1,163,158	-16.5	614,819	0
9	건설중장비	832,749	-17.6	458,597	-10.3
10	타이어	744,333	-10.2	381,914	-10.3
11	칼라TV	617,774	-30.9	346,672	18.9
12	아연도강판	632,094	3	324,071	3.6
13	기타정밀화학원료	512,410	-4.3	272,215	0.1
14	기타조명기기	413,236	50.3	269,345	44.2
15	원동기	544,176	19.6	265,288	-19.8
16	윤활유	659,726	-7.8	250,808	-28.7
17	기타플라스틱제품	494,296	8	247,723	-3.3
18	축전지	316,483	1.4	220,945	50.5
19	광학기기부품	422,494	4.9	180,292	-19.2
20	무선통신기기부품	282,855	-55.6	179,048	44.4

주: MITI 4단계 기준

자료: KITA, HMC투자증권

STRATEGY COMMENT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